

#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이삼식 유계숙 박종서  
이성용 조영태 장보현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머리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래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 다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노동력 공급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의 문제들이 유발될 것이다. 노동력 감소로 세입기반 등이 감소하여, 베이비붐세대 등 다출생세대들이 노년기 진입 시 발생할 사회보장 지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잠재성장을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저출산현상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책들만으로 개인의 출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늘어나는 사회부담을 무한정으로 해소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 지속과 사회부담 증가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저출산현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어서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을 수립·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저점으로 최근 2년간 반등세를 보였다. 물론, 최근의 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수

준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 증가의 원인과 향후 출산율 상승세 지속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출산율이 감소세에 있었던 만큼, 최근 출산율 증가의 원인이나 향후 전망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인별로 통제 가능 정도가 다르므로, 최근 출산수준 증가의 원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출산력 변화를 야기한 원인의 향후 변동 방향이나 정도를 추정하여,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출산수준 변동에 적정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출산율 변동을 중단기적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의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관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김서중 과장, 손주영 사무관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2007년 출산여성과 일반여성에게도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원의 김유경 부연구위원과 신윤정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 목 차

|                                   |           |
|-----------------------------------|-----------|
| 요약 .....                          | 13        |
| <b>제1장 서론 .....</b>               | <b>36</b>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36        |
| 제2절 연구내용 .....                    | 38        |
| 제3절 연구방법 .....                    | 40        |
| <b>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 분석 .....</b> | <b>44</b> |
| 제1절 출산을 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       | 44        |
| 제2절 출산을 증가관련 외국사례 분석 .....        | 59        |
| 제3절 소결 .....                      | 76        |
| <b>제3장 최근 출산력 변화와 특징 .....</b>    | <b>79</b> |
| 제1절 출산력 변화 추이 .....               | 79        |
| 제2절 출산력 변화의 주요특징 .....            | 82        |
| 제3절 소결 .....                      | 89        |
| <b>제4장 최근 출산여성의 출산행태 .....</b>    | <b>91</b> |
| 제1절 인구학적 특성별 출산행태 .....           | 92        |
| 제2절 출산계획 여부와 고려사항 .....           | 97        |
| 제3절 최근의 출산 동기 .....               | 100       |
| 제4절 경기인식과 출산행태 .....              | 102       |
| 제5절 정책수혜와 출산행태 .....              | 104       |
| 제6절 소결 .....                      | 112       |

|                                   |            |
|-----------------------------------|------------|
| <b>제5장 최근 출산력 결정요인 .....</b>      | <b>117</b> |
| 제1절 인구학적 요인 .....                 | 118        |
| 제2절 사회문화적 요인 .....                | 135        |
| 제3절 경제적 요인 .....                  | 153        |
| 제4절 정책적 요인 .....                  | 195        |
| 제5절 소결 .....                      | 222        |
| <b>제6장 출산력 중기예측과 정책적 함의 .....</b> | <b>224</b> |
| 제1절 출산수준 추정의 한계성과 전제조건 .....      | 224        |
| 제2절 2008년 출산력 추정 .....            | 226        |
| 제3절 중기간(2009~2012) 출산력 예측 .....   | 233        |
| 제4절 소결 .....                      | 249        |
| <b>제7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b>      | <b>252</b> |
| <b>참고문헌 .....</b>                 | <b>256</b> |
| <b>부    록 .....</b>               | <b>271</b> |

## 표 목 차

|                                                       |     |
|-------------------------------------------------------|-----|
| 〈표 1- 1〉 2007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의 표본규모와 조사 현황              | 41  |
| 〈표 3- 1〉 기간별 총출생아수 및 연평균 출생아수 추이                      | 80  |
| 〈표 3- 2〉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1997~2007                     | 83  |
| 〈표 3- 3〉 최근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97~2007               | 84  |
| 〈표 3- 4〉 최근 부모 동거기간별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97~2007            | 85  |
| 〈표 3- 5〉 다태아 출생 추이                                    | 87  |
| 〈표 3- 6〉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아 추이, 2004~2007                   | 88  |
| 〈표 4- 1〉 2007년 출산동향조사 대상(2007년 출산가구)의 특성              | 91  |
| 〈표 4- 2〉 2007년도 출산여성의 출산간격                            | 94  |
| 〈표 4- 3〉 2007년도 출산여성의 기대자녀수별 결혼~첫째아 출산간격              | 95  |
| 〈표 4- 4〉 2007년도 출산을 포함한 자녀의 성구조                       | 96  |
| 〈표 4- 5〉 2007년도 출산의 계획 여부                             | 97  |
| 〈표 4- 6〉 2007년 출산을 계획했을 때 고려한 사항                      | 98  |
| 〈표 4- 7〉 2007년 출산 전체 여성 중 항금돼지해를 고려한 출산 정도            | 99  |
| 〈표 4- 8〉 2007년도 출산여성의 출산동기                            | 101 |
| 〈표 4- 9〉 경기 상황이 최근 출산에 미치는 영향<br>(‘경기가 보통이상’ 응답자의 태도) | 103 |
| 〈표 4-10〉 가구소득 변화(좋아졌다는 경우)가 ‘07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 104 |
| 〈표 4-11〉 2007년도 출산여성의 정책 수혜 경험(중복응답)                  | 105 |
| 〈표 4-12〉 2007년도 출산에 정책이 영향을 미친 정도                     | 107 |
| 〈표 4-13〉 정부정책이 2007년 출산에 미쳤다는 응답비율                    | 108 |
| 〈표 4-14〉 수혜받은 정책유형·정책수별 2007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 109 |

|                                                       |     |
|-------------------------------------------------------|-----|
| 〈표 4-15〉 다자녀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에의 찬성 정도 .....                | 110 |
| 〈표 4-16〉 다자녀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가 2007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         | 112 |
| 〈표 5- 1〉 최근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인구구조 및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            | 119 |
| 〈표 5- 2〉 가임기 여성인구 증감 추이 .....                         | 121 |
| 〈표 5- 3〉 1979~1982년생의 결혼(초혼) 추이 .....                 | 123 |
| 〈표 5- 4〉 가임기여성 연령별 출생아수 추이 .....                      | 124 |
| 〈표 5- 5〉 여성 초혼건수(전체, 35세 미만) 추이, 1997~2007 .....      | 125 |
| 〈표 5- 6〉 결혼 후 경과기간(동거기간)별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130 |
| 〈표 5- 7〉 총출생아수 변동에 대한 모연령·출산순위별 출생아수<br>변동의 기여도 ..... | 131 |
| 〈표 5- 8〉 출산순위별 응답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             | 141 |
| 〈표 5- 9〉 첫째자녀 출산에 다변량 분석 결과 .....                     | 144 |
| 〈표 5-10〉 둘째자녀 출산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                  | 147 |
| 〈표 5-11〉 셋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                   | 149 |
| 〈표 5-12〉 남성 연령별 혼인율, 1995~2005 .....                  | 164 |
| 〈표 5-13〉 남성 출생코호트별 25~28세 혼인율, 1995~2006 .....        | 166 |
| 〈표 5-14〉 여성 연령별 혼인율, 1995~2005 .....                  | 166 |
| 〈표 5-15〉 여성 출생코호트별 25~28세 혼인율, 1995~2006 .....        | 168 |
| 〈표 5-16〉 남성연령별혼인율에 대한 다수준APC모형결과(1965~1978년생) ·       | 171 |
| 〈표 5-17〉 여성 연령별 혼인율에 대한 다수준APC모형결과(1965~1978년생)       | 173 |
| 〈표 5-18〉 남성 연령별 첫째아이 출산율, 1995~2005 .....             | 174 |
| 〈표 5-19〉 여성 연령별 첫째아 출산율, 1995~2005 .....              | 177 |
| 〈표 5-20〉 남성연령별 둘째아 및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율, 1995~2005 ..      | 180 |
| 〈표 5-21〉 여성 연령별 둘째아 이상 출산율, 1995-2005 .....           | 182 |
| 〈표 5-22〉 남성 연령별출산율에 대한 다수준APC모형결과(1965~1978년생)        | 186 |
| 〈표 5-23〉 여성 연령별 출산율에 대한 다수준APC모형 결과(1965-78년생)        | 189 |

|                                                                     |     |
|---------------------------------------------------------------------|-----|
| 〈표 5-24〉 정책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관련 분석 내용 .....                           | 196 |
| 〈표 5-25〉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인 내용 및 부호화 체계 .....                            | 197 |
| 〈표 5-26〉 2007년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비교                            | 199 |
| 〈표 5-27〉 2007년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정책영향 지각 및 수혜경험 비교                       | 201 |
| 〈표 5-28〉 정책 유형별 수혜 여부와 2007년 출산 여부와 관련성:<br>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03 |
| 〈표 5-29〉 정책 수혜 정도와 2007년 출산 여부와 관련성:<br>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04 |
| 〈표 5-30〉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인구사회학적<br>특징 비교 .....             | 206 |
| 〈표 5-31〉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정책 영향<br>지각 및 수혜 경험 비교 .....      | 209 |
| 〈표 5-32〉 정책유형별 수혜 여부와 2007년 첫째자녀 출산 여부와<br>관련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10 |
| 〈표 5-33〉 유형별 정책 수혜 여부와 2007년 둘째자녀 출산 여부와<br>관련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11 |
| 〈표 5-34〉 정책유형별 수혜여부와 2007년 셋째이상 자녀 출산여부와<br>관련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12 |
| 〈표 5-35〉 정책 수혜 정도와 2007년 첫째자녀 출산 여부와 관련성:<br>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13 |
| 〈표 5-36〉 정책 수혜 정도와 2007년 둘째자녀 출산 여부와 관련성:<br>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14 |
| 〈표 5-37〉 정책 수혜정도와 2007년 셋째이상 자녀 출산여부와 관련성:<br>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14 |
| 〈표 5-38〉 2007년·2006년 조사가구의 정책 수혜 경험 비교 .....                        | 215 |
| 〈표 5-39〉 2007년·2006년 조사가구의 다산분위기 영향 지각 비교 .....                     | 216 |

|                                                                                        |     |
|----------------------------------------------------------------------------------------|-----|
| 〈표 5-40〉 정책유형별 수혜여부와 2007년·2006년 출산여부와의<br>관련성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218 |
| 〈표 6- 1〉 연도별 및 월별 실제 출생아수 추이와 분포 .....                                                 | 228 |
| 〈표 6- 2〉 2008년도 출생아수 및 출산율 추정 결과(보정 전) .....                                           | 231 |
| 〈표 6- 3〉 2008년도 출생아수 추정(보정전 및 보정후) .....                                               | 232 |
| 〈표 6- 4〉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 .....                                                            | 237 |
| 〈표 6- 5〉 과거 합계출산율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                                                    | 238 |
| 〈표 6- 6〉 과거 출생아수 실측치와 추정치 비교 .....                                                     | 239 |
| 〈표 6- 7〉 연령별출산율 추정식 및 설명력, 2001~2008년(TFR=1.24)<br>자료이용 .....                          | 243 |
| 〈표 6- 8〉 예측모형1에 의한 출산력 추정치 .....                                                       | 244 |
| 〈표 6- 9〉 연령코호트별 지난 5년간 결혼 비율, 출산비율, 기 출산 전체<br>출생아수 추정을 위한 승수, 2005~2007년 평균 경험치 적용 경우 | 246 |
| 〈표 6-10〉 예측모형2에 의한 출산력 추정치 .....                                                       | 247 |
| 〈표 6-12〉 출산력 예측 모형3의 결과 .....                                                          | 248 |
| 〈표 6-13〉 중기간(2009~2012년) 합계출산율 예측결과 종합 .....                                           | 250 |

## 그림 목차

|                                                      |     |
|------------------------------------------------------|-----|
| [그림 2- 1] RAND Europe의 개념틀 .....                     | 53  |
| [그림 2- 2]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     | 63  |
| [그림 2- 3] 일본의 합계출산율 및 경기변동간의 관계, 1970~2006 .....     | 65  |
| [그림 2- 4]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        | 68  |
| [그림 3-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7 .....        | 79  |
| [그림 3- 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81  |
| [그림 3- 3] 최근의 연령별 출산행태 변화 .....                      | 83  |
| [그림 3- 4] 최근 부모 동거기간별 출산행태 .....                     | 86  |
| [그림 3- 5] 다태아 출생 추이 .....                            | 87  |
| [그림 5- 1] 최근 출산수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구조 .....           | 117 |
| [그림 5- 2] 최근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인구구조 및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 .....    | 120 |
| [그림 5- 3] 연도별 출생아수 추이(1979~1982년생 중심) .....          | 122 |
| [그림 5- 4] 1979~1982년생의 결혼(초혼) 추이 .....               | 123 |
| [그림 5- 5] 전체 초혼건수 증가율 추이, 1997~2007 .....            | 126 |
| [그림 5- 6] 가임기여성의 연령별초혼율 추이, 1997~2007 .....          | 127 |
| [그림 5- 7] 경제성장률과 여성초혼건수 및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           | 128 |
| [그림 5- 8] 총출생아수 변동에의 모연령·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변동의<br>기여도 ..... | 132 |
| [그림 5- 9] 주된 가임기여성의 이혼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97~2007 .....  | 134 |
| [그림 5-10] 남성 연령별 혼인율 연도별 추이, 1995~2006 .....         | 165 |
| [그림 5-11] 여성 연령별 혼인율 연도별 추이, 1995~2006 .....         | 167 |
| [그림 5-12] 남성 연령별 첫째아 출산율 추이, 1995~2005 .....         | 176 |

|                                                |     |
|------------------------------------------------|-----|
| [그림 5-13] 여성 연령별 첫째 아이 출산율 연도별 추이, 1995~2006   | 178 |
| [그림 5-14] 남성연령별 둘째아 및 둘째아 이상 출산율 추이, 1995~2005 | 181 |
| [그림 5-15] 여성 연령별 둘째아 이상 출산율 추이, 1995-2005      | 183 |
| [그림 6- 1] 월별 출생아수 분포, 2000~2007                | 227 |
| [그림 6- 2]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수 감소폭   | 230 |
| [그림 6- 3] 과거 출생아수 실측치와 추정치 비교                  | 240 |

## 요 약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사망수준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이민수준이 아직은 미약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출산에 의해 야기 가능
  - 실제 한국의 출산수준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으로 급감한 후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에서 유지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다시 급락하여 2005년에 1.08명까지 감소
  - 지난 2년간 다소 반등하여 2007년에는 1.26명 수준으로 상승
- ☐ 최근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이러한 상승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및 정책적 관심 증가
  - 주된 이유로 최근 출산력 증가 시기가 정책적 노력의 본격화, 사회문화적 풍속(쌍춘년과 황금돼지해), 경제적 회복기, 베이비붐후세대의 주된 가임연령층 진입 등의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
- ☐ 최근 출산력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
  - 원인들에 따라 정책의 집중관리 및 이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능
  - 원인들을 토대로 향후 출산 추이 예측 가능
  - 그동안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 의미

#### 2. 연구 목적

-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력 변화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출산력 변화를 중기적으로 예측하는 목적 설정

- 세부적으로 최근 출산수준 증가의 원인 규명
- 향후 5년간 출산수준 변화 예측
-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정책 방향 제시

### 3. 연구 방법

#### □ 문헌조사 및 외국사례 분석

-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 최근의 출산행태 파악을 위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실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의 2007년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24~39세 기혼여성) 중에서 표출
    - 출산여성 모집단은 전국 시도청 및 시군구청 협조
    - 비출산여성 모집단은 전화번호부 활용(지역할당 계통추출법 적용)
  - 조사내용: 기본특성, 출산행태, 출산결정요인 및 영향정도 등(조사표 참조)

#### □ 출산력 변화에 대한 요인별 분석

- 출산력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별 분해(decomposition)
  - 각 요인이 2006~2007년간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출산력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에 출산순위별 다변량분석 적용
  - 다중회귀모형 적합성검정위해 우도비카이제곱값(the likelihood-ratio chi-squared statistics) 즉  $G^2(M_s | M_f) = -2(L_s - L_f) = G^2(M_s - M_f)$  사용
-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접근법
  -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혼인과 출산의 시기(period), 연령(age), 출생코호트(cohort)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수준APC분석모형 적용

- 최근 출산력 변화에 대한 정책적 요인의 영향 분석
  - 교차분석으로서  $\chi^2$  또는 t-test 분석 적용
  - 다변량적 접근으로 로지스틱회귀모형 구축
- 중기(2008~2012년) 출산력 변화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 시계열적 추이를 이용한 모형, 초혼연령과 연령별출산율간의 연관성을 적용한 모형, 연령코호트별 결혼 및 출산 추이를 적용한 모형, 그리고 경제적인 변수와 인구학적 변수와 총합한 모형 등
- 전문가회의 개최

## II.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 분석(본문 참조)

## III. 최근 출산력 변화와 특징

### 1. 출산력 변화 추이

-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치수준으로 급감,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다소 불규칙하나 1.6명 내외 수준 유지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락하여 2000년대에는 1.2명 내외의 최저출산수준 지속(2005년 1.08명으로 최저)
    - 최근 2년간 출산율 반등세 유지(2006년 1.13명, 2007년 1.26명)
  - 연간 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 수준에서 80년대 60만명대, 90년대 초반 70만명대, 90년대 후반 60만명대, 최근 40만명대로 급격 감소

### 2. 출산력 변화의 주요 특징

- 고령출산 증가

- 만혼화에 따라 25~29세 출산율은 낮아지고 30~34세 출산율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
  - 그 동안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20대 출산율이 2007년에 다소 상승
- 최근 모든 출산순위에서 출생아수 증가(특히, 2007년에 첫째아 급증, 둘째아도 증가)
  - 첫째아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둘째아 이상의 비중은 오히려 다소 감소
- 부모 동거기간별 출산행태
  - 결혼 후 특정순위의 출산까지 소요기간 점차 단축
    - 결혼 후 1년 내 출산비율은 2007년 22.3%로 지속 상승
      - 늦게 결혼하되 빠르게 출산하는 행태가 한국사회에서 정형화
  - 결혼 이래 상당기간 소요 후 출산 증가 경향
    - 결혼 후 10~14년 소요기간에 출산 비중은 2005년까지 3.0~3.2%수준에서 2007년에 3.4%로 다소 큰 폭 증가
      - 다출산 장려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늦둥이 출산 경향과 불임증치료(시험관아이)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고령출산 경향으로 해석 가능
  - 시사점
    - 결혼 후 빠른 기간 내에 출산하려는 경향은 한정된 가임기간 내에 후속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고령출산일 경우 정책적 배려 필요
    - 결혼 이래 상당기간 소요 후에 출산 경향이 높아짐에 따른 정책적 배려 필요
- 전체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다태아출산의 기여도 증가
  - 다태아출산은 2005년 이전 1만명 미만에서 2006년 10,830명, 2007년 13,537명으로 증가(\*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간주)
  -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2001년 1.8%에서 2005년 2.2%, 2007년

2.7%까지 상승

- 전체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9.4%, 2007년 6.0%

□ 혼인외 자 비율이 2004년 1.30%에서 2007년에 1.58%로 점진적 증가

○ 만혼화에 따른 미혼모 발생 증가 또는 임신소모의 감소 경향으로 추측 가능

#### IV. 최근 출산여성의 출산행태

□ 「2007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07년 출산여성을 중심으로 최근 출산행태 분석

##### 1. 인구학적 특성별 출산행태

□ 코호트접근법으로서의 출산간격

○ 결혼 후~첫째아 출산간격은 1년 미만 41.1%, 1~2년 미만 34.7%, 2~3년 미만 12.3% 순

- 첫째아 출산여성 중 75.8%가 결혼 후 2년 내 출산(평균 1.4년)

- 연령별로 결혼 후 1년 내 첫째아 출산비율은 20대에서, 결혼 후 1년 이상이 지나 첫째아 출산 비율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일찍 결혼할수록 초산이 보다 빠르며, 반대로 결혼을 늦게 할수록 초산이 늦어지는 경향

• 후자의 경우 늦게 결혼할수록 후천성불임 증 생식문제로 인하여 첫째아 출산이행이 비자발적으로 지체되거나 만혼을 야기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 등 지속 가능(실제 취업모의 출산간격이 모든 출산순위에서 전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남)

○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

- 2~3년미만 32.5%, 1~2년미만 27.9%, 3~4년미만 16.1% 순(평균 3년)
-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이 1~2년 미만인 경우도 거의 30%에 육박하여, 만혼화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둘째아까지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빠르게(speed-up) 이행 경향
- 연령별로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은 20대에서 약 2년, 그리고 30대에서 3년 이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증가
  - 고연령층일수록 후천성불임증(생식보건문제), 망설임 등으로 출산간격이 비자발적으로 연장 시사
- 둘째아~셋째아 출산간격
  - 5년 이상 37.3%, 2~3년미만 19.8%, 3~4년미만 14.9% 순(평균 4.6년)
  - 고연령층일수록 출산간격이 길어지는 경향
- 기대자녀수별 실제 결혼~첫째아 출산간격
  - 기대자녀수가 1명인 경우 2년, 기대자녀수가 2명인 경우 1.6년, 기대자녀수가 3명인 경우 0.9년으로 기대자녀수가 많을수록 첫째아 출산을 서두르는 경향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출산간격 축소 노력에 집중 필요
- 출생아 성구조
  - 셋째아 출산 여성 중 이전자녀 성구조가 여아-여아 경우 41.2%, 다음으로 남아-남아 경우 22.0%
  - 동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아 남아선호사상이 추가출산이행에 동기 부여 경향

## 2. 출산계획 여부와 고려사항

- 2007년 출산이 계획된 출산 비율 67.5%, 그렇지 않은 비율 32.5%
- 출산순위별로 첫째아와 둘째아의 계획출산 비율은 큰 차이 없으나 셋째아의 경우 계획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2007년 출산이 계획 출산인 경우 고려 사항

- 터울(35.3%), 가구수입(15.4%), 돌봄여건(9.9%), 황금돼지해(7.8%) 순
  - 첫째아 경우 가구수입과 돌봄여건 그리고 둘째아 이상 경우 자녀터울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
- 계획출산여성 중 ‘황금돼지해’임을 고려한 출산 비율은 40세 이상 23.1%, 25세 미만 12.5%로 상대적으로 높음
  - 고연령층의 경우 황금돼지해가 고순위 추가출산에 다소 영향
  - 저연령층은 첫째아 출산시기를 사회관습적 선호 년도로 결정 경향

□ 황금돼지해 고려 경향 분석

- 전체(계획+비계획) 출산여성 중 3.4%가 ‘황금돼지해’임 고려
  - 계획 출산 여성의 5.0%가 황금돼지해임을 감안하여 출산시기를 2007년으로 조정하였으나, 계획하지 않은 출산을 한 경우에는 ‘황금돼지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 결국 특정연도를 선호한 출산은 출산집중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영향은 의문시

### 3. 최근의 출산 동기

- 2007년도 출산여성의 출산동기의 유형들로는 ‘아이가 외로울까봐’가 2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생겨서’ 24.0%, ‘결혼하면 당연히 낳아야 하기 때문’ 13.3%, ‘아들이나 딸을 낳기 위해’ 8.4% 순
  - 첫째아인 경우 ‘결혼하면 당연히 낳아야 하기 때문(36.2%)’
  - 둘째아인 경우 ‘아이가 외로울까봐서(53.9%)’
  - 셋째아인 경우 ‘자연스럽게 생겨서(36.5%)’가 가장 주된 동기

### 4. 경기인식과 출산행태

- 경기가 보통이거나 좋아졌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한 출산여성들 중 그러

한 경기상황이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17.4%(2006년 조사 10.7%)

-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기하였던 출산(또는 결혼 후 출산)이 2007년에 이행된 결과로 해석

- 출산순위별로 셋째아(30.8%)와 첫째아(19.3%)를 출산한 여성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

- 출산여성 본인가구의 소득 변화가 2007년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27.6%(큰 영향 4.9%)

- 출산순위별로 첫째아(33.7%), 셋째아(29.3%) 순

- 가구소득 변화와 경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 정도는 일관

-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경기상황이 악화되거나 가구소득이 줄어들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면 출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5. 정책수혜와 출산행태

-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7가지 정책들에 대한 2007년도 출산여성의 수혜정도(중복응답)

- 산모·영유아건강관리지원 73.1%, 자녀소득공제 44.1%, 보육·교육비지원 40.5%, 출산축하금(지자체)지원 36.6%, 일-가정양립지원 34.4%, 보육·교육시설확충 22.5%, 불임부부지원 3.5% 순

- 정책 수혜여부가 2007년도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인식도)

- 전체 응답자의 18.4%만 긍정적 답변(큰 영향 2.6% 포함)

- 농촌,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에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정책 영향의 내용으로는 자녀수 추가(2007년 출산) 7.3%, 출산시기 결

- 정 6.7%(이 중 2.9%는 자녀수 추가와 출산시기 결정 모두에 영향)
- 자녀수 추가에 대한 영향 인지 비율은 첫째아 출산의 경우 4.6%, 둘째아 출산의 경우 8.0%, 셋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 9.5%로 고순위 출산일수록 높은 경향
- 정책이 자녀수 추가(2007년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비율은 수혜 정책의 유형별 및 정책의 수에 따라 차이
  - 수혜정책의 유형별로는 일-가정양립지원 8.3%, 보육교육비지원 2.0%, 추가소득공제 1.8% 등
  - 수혜정책의 수에 따라 자녀수 추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
- 최근의 다자녀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에 대해 찬성 37.7%, 반대 23.6%, 보통 38.8%로 긍정적 경향
- 다자녀 장려 사회분위기가 본인의 2007년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는 68.0% 비영향, 26.2% 다소 영향, 5.8% 큰 영향
  - 첫째아 출산인 경우 영향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V. 최근 출산력 변화의 결정요인

### 1. 인구학적 요인

#### 가. 최근 출생아수 증가의 원인

- 2005~2006년간 출생아수 증가에 대해 출산율 상승이 16,541명을 증가시킨 반면, 가임기여성인구구조 변화는 오히려 4,853명 감소 효과
  - 출산율 상승의 정적 효과(+141.5%)가 여성인구구조 변화의 부적 (-41.5%) 효과를 상쇄하고 남아, 결과적으로 출생아수 증가
- 2006~2007년간의 출생아수 증가에 대해서는 출산율 상승의 정적 효과

(+114.5%, 48,349명), 가임기여성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효과(-14.5%, 6,115명 감소)

- 연령별로 가임여성인구(규모) 변화와 출산율 변화의 효과에 차이 존재
  - 20~24세 여성의 경우, 2006~2007년간 가임여성인구의 부정적 영향에 비해 출산율 변화의 정적 영향이 더 커, 전체적으로 출생아수 증가
    - 2005~2006년에는 가임여성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가 감소
  - 25~29세 여성의 경우, 2006~2007년에 가임여성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증가
    - 반면, 2005~2006년에는 가임여성인구 변화의 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커, 출생아수가 감소
  - 30~34세 여성의 경우, 2006~2007년에 가임여성인구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화의 정적인 영향이 아주 커 출생아수가 급격 증가
    - 이러한 경향은 2005~2006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출생아수가 증가
  - 35~39세 여성의 경우, 2005~2006년 그리고 2006~2007년에 공히 가임여성인구 변화와 출산율 변화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출생아수가 증가
- 결과적으로 2005~2006년간의 출생아수 증가는 30대 연령층에서의 출산율 상승이 주도하였다면, 2006~2007년간의 출생아수 증가는 30대뿐만 아니라 20대에서의 출산율 증가가 주도한 것임(30~34세, 25~29세, 35~39세 순)
  - 특히 25~29세 연령층의 여성규모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 동반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간주
    - 부정적 효과대신 정적 효과를 발생시켜 출생아수 증가폭을 크게 한 작용

- 즉, 출산율 상승효과가 2005~2006년에 비해 2006~2007년에 컸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부적 효과는 오히려 감소

#### 나. 가임여성(25~29세) 증가의 원인

- 20~24세, 30~34세 등을 포함한 전체 가임기여성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거 출산 감소에 기인), 최근 25~29세 여성인구 증가의 정적 영향은 일시적으로 출산이 증가하였던 1979~1982년생의 결혼 및 출산 증가에 기인
  - 25~29세 여성인구는 2005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06년 23천명, 2007년 24천명 각각 증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
- 1979~1982년생이 결혼적령기에 진입하면서 이들의 초혼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
  - 1979~1982년생 초혼여성은 2000년 14.8천명에서 2005년 74.0천명, 2006년(당시 24~27세, 2007년에는 25~28세)에 104.4천명으로 급증
  - 1979~1982년생 여성의 초혼건수 비율도 2000년 5.2%에서 2006년 38.5%로 급상승
- 베이비붐후세대들의 결혼 및 출산 연령층 진입으로 인하여 25~29세 여성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도 2006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07년에는 14.1천명(8.1%) 증가
  - 이와 같이 가임기 여성수의 일시적인 증가는 연령별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출생아수 증가로 이어지는 post-babyboom 현상유발
    - 한편, 만혼화(초혼연령 상승) 및 만산화 경향으로 인하여 30~34세 이상 여성으로부터의 출생아수는 증가세 지속

#### 다. 결혼 추이와 원인 분석

- 임신·출산이 활발한 35세 미만의 여성인구의 연간 초혼건수는 '04년

236천건을 저점으로 증가(2006년 259천, 2007년 268천)

- 지난 3년간 초혼누적건수는 2005년 712천건을 저점으로 2006년 731천건, 2007년 763천건으로 증가
- 최근 결혼건수 증가는 일시적으로 출산이 증가하였던 1979~1982년생의 결혼연령층 진입과 그 동안 지연되었던 결혼의 증가에 기인
  - 그 동안 지연되었던 결혼의 증가는 연령별 결혼률이 최근 상승한 것과 일치
    - 연령별 결혼률의 상승은 해당 여성인구규모(분모)의 증가율에 비해 결혼건수 증가율이 더 높음을 의미
- 그 동안 지연되었던 결혼이 증가한 주요 원인
  -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은 고용을 증가시켜 미혼인구들로 하여금 결혼할 여건을 조성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잠재성장률이 증가하는 등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과 2003년부터 초혼건수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되고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한 것과 연계 가능
  - 최근에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유리하게 하는 고용문화가 빠르게 변화
    - 산전후휴가자 중 육아휴직비율 급증 등

라. 최근 결혼의 증가와 출생 증가간의 연관성 분석

- 최근 결혼 증가가 출생아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
  - 한국사회에서 대부분 출산은 법률혼(2007년 혼인중출산 98.4%, 혼인외출산 1.6%)에서 발생
  - 결혼 후 1년 내 출생아수는 2005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06년 약 6천명(증가율 6.6%), 2007년 17천명(18.1%)으로 급격 증가

- 결혼 후 1년~2년 내 출생아수는 2006년 2.5%, 2007년 11.1%로 증가하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 결혼 후 단기간 내 출생아수 비율이 높으며, 최근에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년 내 출생아수 비율이 2004년 40.1%에서 2007년 42.4%로 상승
- 최근 결혼여성으로부터 첫째아 출산 가능성이 높기 마련인데, 실제 2006년과 2007년도 출생아수 증가 중 첫째아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07년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첫째아 68.9%, 둘째아 23.5%, 셋째아 7.8% 등이며, 연령별 및 출산순위별로는 25~29세 여성의 첫째아 28.9%, 30~34세 여성의 첫째아 25.2%
  -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첫째아 60.7%, 둘째아 33.1%, 셋째아 4.3% 등(30~34세 여성의 첫째아 48.0%, 둘째아 31.9% 등 기여도)
- 2005년도 출생아수 감소는 둘째아(43.6%)와 첫째아(43.1%) 감소가 비슷하게 기여한 것과 대비

## 2. 사회문화적 요인

-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 분석방법: 다변량분석
  - 이용자료: 2007년 전국출산동향 조사 결과
-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 순위에 따라 차이
    - 출산장려 분위기를 찬성하는 태도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셋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

-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든 출산순위에서의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
  - 자녀 및 가족 관련 가치관 제고 정책 중요
- 부부간 육아·가사분담정도는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
  -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에 의하면, 양성평등수준이 높으면 출산율과 양성평등수준은 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양성평등수준이 낮으면 부적인 관계를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부인 연령 변수의 경우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이, 둘째아이, 그리고 셋째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낮음
-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 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일단 아이를 낳으면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들보다 다산 경향 존재
- 자영업자, 고용주 혹은 상용근로자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모든 출산순위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음

### 3. 경제적 요인

#### □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 혼인 및 출산 동향과 관련하여 시기(period), 연령(age), 그리고 출생코호트(cohort)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수준APC분석모형 적용
- 1995~2006년 기간의 분기별로 연령, 성별 혼인율과 출산율, 그리고 경제 지표(연령별 실업률, 연령별 고용율, 부모세대의 실업률 및 고용률,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 등 자료 이용

#### □ 분석결과

- 25~29세 남성들의 혼인율은 1995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크게 감소되어 왔지만,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 여성의 혼인율은 다소 증가
- 남성 혼인율의 감소는 1972~1974년 출생코호트가 1997~2002년에 25~28세를 지나면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임
- 여성 혼인율은 경제위기 시점에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남성들은 혼인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반면,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은 오히려 출산을 선택
- 다수준APC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혼인에 있어서 연령, 코호트, 그리고 기간의 효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는데, 경제변수들의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즉 경제상황의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혼인 시점을 변화시켰을 수는 있지만, 혼인 시점인 year를 보정하면 경제상황 변수들의 혼인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 도출 가능
- 첫째자녀 출산의 경우 남성은 1995~2006년 사이에 출산율이 21% 감소한 반면 여성들은 오히려 20% 증가
  - 이는 1995년도에는 많은 여성들의 첫째자녀 출산이 25세 이전에 이루어졌고, 본 분석은 25세부터로 연령을 제한했기 때문
  -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2006년의 첫째자녀 출산이 1995년에 비교할 때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명확
- 남성의 첫째자녀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모든 연령층의 첫째자녀 출산 감소가 아닌 1997~2002년 기간 사이에 26~27세를 경험한 남성들에게서 매우 두드러졌는데, 이때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 첫을 시기임

-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율은 25~26세에 감소한 반면 28세 이후 증가하여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1974~1977년 출생 여성들이 25~26세에 첫째자녀 출산을 연기하였다가 28세 이후에 출산 선택
- 첫째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변수의 효과는 주목할 만하였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연령, 코호트, 그리고 기간 효과를 보정한 이후에도 출산 1년 전의 본인 연령대의 실업율과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은 출산에 부정적인 역할
- 경제변수의 효과를 고려한 이후에도 기간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기간 효과에는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본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각각 1995~2005년 기간 동안 44%와 33%의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있어 첫째자녀 출산의 경우 여성의 출산연령이 뒤로 늦어진 것에 기인하며(tempo effect),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 자체가 크게 낮아진 것(quantum effect)에 기인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포기한 남성들은 주로 1969~1973년 출생 코호트이며, 여성들은 1973~1979년까지의 넓은 출생 코호트로 판명
- 둘째 이상 자녀 출산과 관련한 경제상황 변수들 가운데 남성들에게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만이, 여성들에게는 이와 함께 1년 전 본인 연령대의 실업률이 출산을 포기하는데 기여
- 경제 변수의 고려는 기간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지니고 있는 효과를 다소 감소
- 기간 효과에는 경제 변수로부터의 효과 이외에도 본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둘째 이상 자녀

## 출산에 여전히 영향

## □ 분석결과의 시사점

-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 본인의 실업률이 높았을 때 출산이 감소하였고, 또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았을 때 출산이 감소
  - 이 결과는 향후 출산력의 변화를 예측해 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경제적인 불황이 계속될 때 첫째 자녀는 물론 둘째 자녀의 출산이 연기되거나 기피되어 전반적인 출산력이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
- 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경제 사정이 호전되어 본인 연령대의 실업률이 축소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되어 젊은 연령층이 출산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측
  -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2006년과 2007년에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조금이나마 호전된 경제 사정이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
-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출산율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 예컨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혹은 출산과 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기대감이나 가치 등을 들 수 있음

## 4. 정책적 요인

## □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 분석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
- 이용자료: 2006년과 2007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결과

## □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정책 유형별로 2007년 출산 여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불임부부 지원정책, 모자건강관리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보육비

- 교육비 지원정책의 순으로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은 2007년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두 자녀이상인 가구의 공제금액을 보다 상향 조정 필요
-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 보완 필요
- 2007년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에 공통적으로 기여한 정책은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과 모자 건강관리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비율은 아주 낮은 수준)
-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자녀를 두고 둘째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의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혜율을 보다 제고하는 노력 필요
- 출산·육아관련 정책들의 중복수혜는 2007년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가능성뿐만 아니라 첫째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매우 효과적
- 맞벌이가구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과 같이 다양한 정책들의 중복수혜를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가구가 현재보다 증가해야하나, 2007년 둘째자녀 출산가구가 자녀수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나 심지어 자녀수가 하나 적은 첫째자녀 출산가구에 비하여 출산·육아관련 정책과 다산장려 분위기의 영향을 지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한 자녀를 두고 둘째자녀를 계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미시적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과 홍보 필요

## 5. 소결

- 출산력 변화는 어느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음
  - 출산은 그 자체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이긴 하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여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
  -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석, 논의된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
- 우선 인구학적으로 최근의 출산력 변화는 多출생한 1979~1982년생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시작하고 그 동안 연기되었던 결혼이 증가하여 결혼건수가 누적되었고, 이들로부터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이 2006년과 2007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으로 설명
  - 특히, 2007년대의 출산율 상승은 30대 초반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였기 때문
    -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아 출산의 증가가 결혼의 증가에 기반하며, 이는 경제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 이와 달리, 둘째아 또는 둘째아 이상의 증가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적 요인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통계적인 심층분석 결과 과거에 경제상황의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혼인 자체보다 혼인 시점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출산까지도 연기시키거나 포기시키는 작용
-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출산력 변화에 작용
  - 특히 그 변수들이 기간 효과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혹은 출산과 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기대감이나 가치관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실제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최근 출산력 증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명

- 자녀필요성 인식은 모든 출산순위의 출산에, 그리고 출산장려 분위기는 셋째아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 저출산 대응 정책들도 최근 출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
  - 불임부부 지원정책, 모자건강관리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의 순으로 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특히, 출산·육아관련 정책들의 중복수혜는 2007년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뿐만 아니라 첫째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
- 요컨대, 최근의 출산력 변화는 인구학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인 가임여성인구의 연령구조가 유리하게 작용하였고(양적 증가) 결혼이 증가한데 기인하나, 이들이 출산 증가로 이어진 것은 경제상황의 호전과 정책적 노력 및 사회분위기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간주

## VI. 출산력 중기예측과 정책적 함의

### 1. 2008년 출산력 추정

- 2008년도 출산력을 월별 출생아수 분포나 과거대비 출생아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 합계출산율은 신고치 기준으로 1.22명~1.24명 그리고 정도(精度) 보정 후에는 1.20명 내외(1.18명~1.21명)로 추정
  - 총출생아수는 47만명 내외로 추정
    - 이러한 결과는 2007년도에 비해 출생아수는 3만명 내외 그리고 합계출산율은 0.06명 내외가 낮은 수준

## 2. 중기간(2009~2012) 출산력 예측

### □ 예측방법

- 모형1: 연령별출산율(ASFR)의 시계열적 변화 적용
- 모형2: 결혼건수와 결혼기간별 출산비율 적용
- 모형3: 경제변수(실질GDP성장률) 적용

### □ 모형에 따른 출산력 예측 결과 및 시나리오 설정

#### ○ 모형1 결과

- 가장 낙관적인 예측 결과로 합계출산율이 2009년 1.20명 수준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1.38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
- 세계금융위기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거나 미미할 것으로 가정하여 합계출산율은 단기적으로 잠시 낮아지나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전제

#### ○ 모형2 결과

- 중기간 합계출산율은 1.2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예측
- 2008년도 출산율 감소 추이(또는 2006년 수준으로 회귀)와 함께 최근 세계금융위기 등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중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현실화 가능

#### ○ 모형3 결과

- 향후 경제성장률이 2%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경우 합계출산율 1.0명 또는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사회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이 2009년부터 결혼 및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적어도 중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현실화 가능

### 3. 소결

- 최근 들어 정부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다출산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2007년 출산율 증가는 자칫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인구학적으로 다출생 베이비붐후세대의 결혼 및 출산이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출산력 추이에서 그들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이들 세대가 둘째자녀이상의 순위로 이행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 영향의 지속기간은 잠시 더 연장되는 효과만 있을 것임.
  - 경제적으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즉,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출산수준이 급락하는 현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최근 출산력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에 이은 또 다른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충격파로 끝나지 않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내지 의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 또 한 번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으로 비혼과 무자녀를 당연시 여기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될 것임.
-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한국사회 홀로서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할 것이나, 외부의 충격이 결혼 및 출산이라는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방치할 수없는 것이 현실임.
  - 결국 경제위기 등 여건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정 긴축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인간의 본연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우리사회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보호의 노력은 더욱 강화 필요
- 특히,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